

## 지역협동조합 중심의 유기농업 생산·유통체제 구축 방안

### - 고삼농협 사례 -

조 현 선

안성 고삼농협 조합장

### 1. 서 언

94년 고삼지역에서는 한 선도농가가 오리농법을 이용한 유기농법을 실시하였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으니 도움을 줄 수도 없었다. 고삼농협은 때마침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여 조합원을 위해 새로운 사업개발에 부심하고 있었지만 대안 마련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나온 것이 고삼농협장기발전계획이다.

목표와 희망이 있으면 사람이건 조직이건 절망속에서 빛을 따라 전진하기 마련이다. 고삼농협과 조합원들은 유기농업과 유기축산순환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내왔으며 이를 위해 우직하게 걸어오고 있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듯이 고삼에서 우연히 시작된 유기농업은 준비하는 주체의 노력에 의해 고삼의 대표적 소득작목이 되었으며, 점점 환경농업이 시대적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 누구에게도 몇몇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1·2차에 걸친 장기발전계획의 전략 수립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고삼지역의 유기농업 실천을 개괄하였다.

## 2. 고삼 친환경농업 추진 초기(95~98년)

- 1차 장기발전계획(서울대농업정책연구회 협력)을 중심으로 -

### 가. 추진 배경

#### 1) 대외적 조건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전면적 농산물 수입개방이 결정됨 → 정신적 공허감, 농업의 양극구조 초래 위기
- 대규모 전업농 중심의 농정방향 전환 및 지원 → 소규모영세농가 전멸 위기
-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됨에 따른 농협조직의 역할 증대

**2) 대내적 조건(고삼의 자연·지리적 조건)**

- 농지조건이 논 중심으로 이루어짐
- 고삼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저수지가 위치함.
- 도시근교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3) 작목체제**

- 미곡과 축산에 편중되어 있음.

**4) 주체적 특징**

- 다른 지역에 비해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이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함(35%).
- 생산조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자원이 풍부함.

**5) 농 협**

- 농협의 지도·판매 사업의 극히 일부분만을 취급하고 있었음.

**나. 고삼농협에 주는 시사점**

- 개방압력과 경쟁압력에 대응하는 농협조직 만들기
- 농협조직을 지역공동체의 핵심조직으로 키움. (생산조직의 육성)
- 미곡과 축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특색사업방식 개발 필요.
- 농민이 요구하는 생산 및 판매부분에서 역할 증대 요구됨.

**다. 추진 계획****1) 추진 목표**

- 〈생산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미작·축산의 고급화〉
- 미작의 경우 고급화-브랜드화를 지향
- 조사료 비율 확대를 통한 한우의 고급화
- 작목간의 요소 교환을 통한 생산비 절감 추구

**2) 추진 주체 - 농협**

- 농협조직의 강화 및 효율체제 구축(고급화전략에 맞는 농협체제 구축)
- 농협은 지역경제의 중심인 동시에 공동체의 중심에 서야 하며 종합농협으로서 조합원의 사회, 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야 함.

-이를 위해 농가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상품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부분에 있어 농협 조직이 일관된 관여와 지도가 필요함.

### 3) 추진 방법(농협 지도·판매사업의 강화)

#### ① 지도사업강화

지도사업은 계량적인 사업 실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농가의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도를 실시하면서 사업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함.

- 생산조직화(핵심농가 선별 및 작목반의 조직화 및 장기계획 구상)
- 조합의 사업 배치 배분
- 생산조정 및 익년계획 수립
- 경영 및 기술지도 실시

#### ② 판매 및 홍보전략 수립

판매의 성패는 곧 고삼농협 장기발전계획 성패와 직결되는 부분임.

- 건강식, 안정성, 고품질, 자연환경 보전 등과 관련된 농산물 시장 공략
- 직거래 중심의 유통전략
- 안심 고삼 = 환경보전형 농업지대, 고품질 농업지대라는 홍보전략 수립.

### 라. 사업추진단계 설정

- 1단계 (95~97년) 사업기반 조성기
  - 기초조직 육성 및 유기농업 도입단계
- 2단계 (98~2001년) 사업정착기
  - 발전전략의 수정 및 점검
  - 지속적 교육 및 조직사업전개
  - 유기농업의 정착
- 3단계(2002~2004) 안정적 발전기
  - 생산조직 등 각종 협동조직의 안정적 발전
  - 지역복합과 농민적 시장대응을 통한 지역농업의 모델 창출
  - 유기농업, 환경보전형 농업의 전형 창출

## 마. 주요 추진활동

### ① 환경농업 실천지역 및 환경농업 실천 농협 결의, 선포

- 97년초 고삼농협 대의원총회 결의
- 오리농기 행사 및 선포식 개최(붙임 자료: 실천 결의문)
- 환경농업실천 선포 기념 조형물 제막 (관내 관화가 및 조각가 참여)

### ② 환경농업 생산자 조직

- 5개 환경농업작목반 구성(80여 농가)
- 환경농업작목회 구성
- 생산자회의를 통한 민주적 결정

### ③ 환경농산물 전량 직거래 계약재배

- 전량 회원 직거래(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소비자 회원)
- 95년 37가마 → 96년 400가마 → 97년 2,200가마 → 98년 2,500가마

### ④ 자연학습장 겸 농사체험장 개설

- 96년 안성시 관내 50여 명, 97년 중고생 및 대학생 600명 98년 소비자 등 800여명

### ⑤ 환경농업 시범포 운영 및 견학 수용

### ⑥ 국제 환경농업단체와의 교류 및 해외 연수

- 96년 일본 지바현 농협직원 방문연수
- 97년 일본 효고현 유기농업연구회 견학, 아시아 카톨릭농민회 각국 대표단 견학
- 97년 일본유기농업 연수 참여

### ⑦ 환경농업 품목 확대 및 농법 도입

- 혹미, 참쌀, 옥수수, 배추, 무, 고추 등으로 품목 확대
- 우렁이 농법 도입
- 미생물배양기를 이용한 유산균 농가공급

## 바. 성과와 한계

### □ 성 과

#### ① 환경농업지대로의 정체성 획득

- 4년동안에 10%의 조합원, 10%의 논면적에 오리쌀 확대됨.
- 97년 초 농협 대의원총회에서 환경농업실천지역, 환경농업실천농협으로 결의, 선포는 전 조합원의 의지와 희망이 환경농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줌.
- 곧 조합원의 의지와 자신감 획득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② 도농교류 활성화와 직거래 기반 확보

#### ③ 외부조건의 주체적 개선

- 정부, 농협중앙회 및 지자체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임.

### □ 한계점

- 쌀을 중심으로 지역농업 조기화를 일부 달성하고 있지만 축산과의 연계가 부족함.
- 마케팅능력의 확대가 절실함.
- 지도사업이 생산 및 농가조직화 부분에 밀착하지 사업하지 못함.

## 3. 고삼친환경농업 추진 중기(99~2001년)

- 2차 장기발전계획(서울대농업정책연구회 협력)을 중심으로 -

### 가. 고삼농협 내외부조건

#### □ 대외조건

- WTO출범에 따른 개방농정 본격화 → 품질차별화 가속화의 필요성
- 소비자선호도의 변화 → 고급화, 다양화, 간소화
- 전문화, 상업화의 진전에 따른 농가계층분화 심화
- 새정부 출범에 따른 가족농과 환경농업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대두 → 환경농업에 유리한 조건

#### □ 대내조건

- 대다수 농가의 영세경영체제 유지, 일부 상층농의 비약적 상승

- 겸업농가 증대
- 축산규모의 급진전과 IMF경제위기로 인한 위기확산

나. 기본전략

1) 오리농법 안착화 및 확대

2) 환경농업생산 시스템 구축

“순환작부체계를 활용한 유기축산시스템 개발 및 고급육 판로 개척”

- 경종과 축산농가가 서로 돕는 체제 구축
- 오리농법으로 생산한 볏짚과 겨울철 유희농경지를 활용한 조사료(보리, 호밀)원을 한우에게 먹임으로 거세고급육 생산함.
- 이를 기초한 자체 브랜드육 생산 및 판매 계획

다. 세부 추진 현황

1) 오리농법 안착화 및 확대

① 지속적인 면적 확대 추진

98년 15만평으로 늘었던 오리농법이 도로부지편입등으로 인해 2001년 현재 12만평 정도로 됨.

② 작목반 조직 운영 안착화

5개 작목반 1개작목회 52농가 현재 작목반에 참여 중.

환경농업작목회 운영 현황	
<p>□ 환경농업작목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측 입장 취합, 조정 및 소비자측 전달</li> <li>- 오리, 계분, 유산균 등 자재 물량 취합, 농협을 통해 구매</li> <li>- 소비자교류(농사체험장 관리, 견학 도우미) 역할 배분</li> <li>- 생산자간 기술정보 교류 추진</li> <li>- 새로운 품목 도입 및 생산량 배분</li> <li>- 공동노동 등의 작목반 활성화 사업 추진</li> </ul>	<p>□ 작목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목회/농협 협의 및 결정사항 실행</li> <li>- 소비자교류 활동의 실행단위</li> <li>- 생산 농가들의 수매 희망 가격 등 의견 취합</li> </ul>

## ③ 지속적인 도농교류 사업 실시

- 도시소비자를 위한 자연학습장 개설(500평)
- 우리식품전시회 친환경농업홍보관 운영(서울 KOEX)
- 천주교 서울대교구 농민주일행사 및 추수감사제 참가
- 도시청소년 농촌체험캠프 운영 : 서울 역삼동·청파동·대치동성당(350명)

## ④ 오리쌀 판로 개척

- 유통시장의 흐름이 대형유통업체로 이동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경로 개척 추진
- 2001년 흑미, 찹쌀 등의 잡곡을 직접 도정, 소포장 하여 공급함.
- 소포장(4kg, 7kg) 상품 개발,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

## ⑤ 새로운 유기농생산기술 접목

- 돈분액비를 이용한 밀거름 사업 실시(4만평 논에 돈분액비 살포)
- 유산균, 키토산 등의 친환경농자재 제작, 공동살포
- 오리사료, 유기질 퇴비 자가 제조하여 생산비 절감 추진

## ⑥ 생산기반 시설 정비

- 2000년 친환경지구조성사업(10억 사업)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체제 구축
- 유산균배양기(500리터), 오리사료/유기퇴비제조시설, 축산분뇨액비탱크 6기(1,600톤)
- 친환경비닐하우스(1,200평 3기), 친환경농산물도정소포장라인 1기, 정보화교육장 개설 등

## 2) 유기축산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 푸른들작목반 구성, 양질조사료원 실험(98년)
- 실행 경과

1998	푸른들작목반 구성
1998.10	3만평 호밀재배(전 : 2만평, 닭 : 1만평)
1999. 3	연맥 3만평 재배(종자공급량 : 2,000kg 재배방식 : 닭리작, 수확 : 사각베일 작업)
1999.10	보리 2만8천평 재배
2000. 5	보리수확, 원형베일작업(곤포 70개생산)
2000. 9	생뽕짚 베일작업
2000. 9	보리 4만5천평
2000.10	강변 1만평 부지에 호밀 파종
2001. 5	안성농축 농장 호밀재배포 닭근먹이 베일 작업 완료(곤포 120개)
2001. 5	강변 1만평 호밀재배포 닭근먹이 작업완료(곤포 42개)
2001. 5	조사료 생산에 적당한 초단기성 벼 종자 시범포 실시(1,200평, 작물시험장 공동)

## 3) 자체 고급육 브랜드화 및 판로 개척("안성마춤 한우")

- 안성마춤 한우 브랜드화 성공 및 대형유통업체에 정육 납품.
- 유기축산순환시스템에 의해 의해 생산한 양질 보리, 호밀 조사료원을 먹여서 고급육으로 하고 있음.
-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양질조사료원과 동일한 사양프로그램에 따라 거세를 실시해야 함.
- 추진 현황

1998년 4월	안성마춤 한우 엘지백화점 부천점 입점
2000년 4월	LG백화점 안산점 입점
2000년 5월	안성마춤 한우 셀파 5종 검사 실시
2000년 6월	안성마춤 한우 국내최초 생산자리콜레 실시(고삼농협 60%, 안성시 30%, 생산농가 10% 부담)
2000년 7월	LG백화점 구리점, 송파점 입점
2000년 9월	전국고급육 품평회 브랜드부분 최우수상 수상

## 라. 성과와 과제

## 1) 오리농법 안착화

- 고삼농협과 환경농업작목회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생산기반시설 구축.
- 친환경농자재 자체생산 및 살포등으로 친환경농법 수도작 전형 마련.
- 면적확대 요구됨.

## 2) 유기축산순환시스템의 단초 마련

- 유기농법의 자가 순환시스템 구축으로 진정한 유기농업에 한 발 더 다가섬.
- 충분한 조사료원 확보를 위해서는 유희조사료단지 경지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3) 유통시장 개척

- 새로운 유통경로 확보로 안정적인 유기농업 유지의 발판 마련
-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시장에 능동적인 대처를 지속해 나가야 함.



### 3. 결 론

고삼의 유기농업은 UR협상의 타결에 따른 농업 전체의 위기감속에서 여타의 소득작목이 없는 고삼의 특성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고삼농협이 주도하여 시작하였다.

농협이 유기농업을 실천하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농협의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잘 헤쳐나갈 수 있다. 고삼농협의 경우 고삼농협의 기초조직인 작목반을 활용함으로써 주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농협이 앞장서 컨설팅(서울대농업정책연구회)업체, 정부지원(친환경 지구조성사업 10억 사업), 유관단체(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축산기술연구소), 언론기관의 지지·지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지원, 자재지원, 전량 구매 및 판매 대행 등 자금력과 생산 기반이 필요한 사업에 농민 대신 농협이 앞장섬으로써 농민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농협 조직의 자금력과 조직력은 유기농업 실천에 큰 보탬이 되었다.

이제 고삼지역의 유기농업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전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작목반원의 환경농업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유기농업 실천의 넘어야 할 큰 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협의 특성상 전체 조합원이 환경농업을 실시하지 않는 한 환경농업을 실천하지 않는 농가들을 설득하고 권유해야 하는 것도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환경농업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세밀한 지도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조합장과 조합 조직의 지도의 일관성, 연속성, 효율성 문제 또한 짚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삼농협과 고삼유기농업실천인들은 이미 큰길을 걷고 있다고 자부한다.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면서 가겠다는 의지로 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